셰일가스혁명은 국제협력 강화로 대처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손 양 훈**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지역 셰일가스 생산 급증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적인 요인으로 셰일가스혁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추가로 생산된 가스가 우리나라가 작년에 소비한 전체 천연가스의 약 6배에 이르고 있다. 천연가스뿐만 아니다. 미국은 새로운 원유도 추가로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불과 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 되었으며, 수년 후에는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석유 생산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국의 석유 수출도 논의되고 있어 향후 국제 에너지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셰일가스는 미국의 에너지가격을 현저하게 낮추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산업생산과 고용에 파란불이 켜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미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화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새로운 경험이다. 이는 더 나아가 국제정치와 시장질서에 거대한 변화가 닥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에너지를 수출한다는 것은 자국의 힘으로 유가를 움직일 수 있는 '생산조정국(swing producer)'으로서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셰일가스 수출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전통적 가스 수출국인 중동과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 등의 국가들도 셰일가스혁명의 여파에 대응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벌써 산유국들과 미국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표출되고 있다. 셰일혁명으로 에너지자립을 확보하게 된 미국과 중동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중국이 중동을 배경으로 외교적 경쟁을 벌어지고 있다. 석유와 가스 수송의 요충지인 흑해와 크리미아 반도의 국제정세도 에너지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최근 세계 에너지시장의 중심이동,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접근성 강화가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면서 글로벌 에너지협력을 주도할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에너지 거버넌스 그룹들이 존재하지만 에너지부문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석유 공급의 불안정성이 중동 정세 변화와 같은 국제정치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크리미아 사태 이후 국제정치와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에너지 최대소비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독점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온 중동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도 국제협력의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다.